

푸코의 초상: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의 푸코 인용 양상 변화, 2008-2021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참고문헌 데이터를 중심으로 *

허예슬, 김병준, 최주찬, 최진석

[국문 요약]

이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이래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에서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인용 양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푸코의 저술이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확인하고자 했다. 통계 분석, 구조적 토픽 모델링, 그리고 실제 인용문의 질적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푸코의 피인용수는 2020년 급감소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푸코의 중기>전기>후기 사유를 담은 저서 순으로 많이 인용되었다. 특히 『감시와 처벌』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헤테로토피아』 인용의 급증이라는 인용 양상의 특징적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푸코를 인용한 논문과 인용하지 않은 논문간의 주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명목변수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푸코 인용 논문은 비인용 논문 대비 (정치)담론, 타자, 공간이라는 토픽이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별에서 유의미한 인용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푸코를 더 많이 인용하였으며, 푸코 인용 논문 안에서도 성별에 따른 주제 분화가 있었다. 여성은 타자/주체, 젠더 토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남성은 언어/텍스트, 비평/문학사, 토픽이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보였다. 정리하자면, 푸코의 사유에

허예슬	공동(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김병준	공동(제1)저자,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 연구조교수
최주찬	공동(참여)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수료
최진석	공동(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2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RS-2023-00241749).

서 근대문학의 기원은 언어의 위상으로부터 설명되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의 현대문학 연구자들은 근대문학 내지는 근대어 자체에 대한 푸코의 사유보다, 권력이나 정치에 대한 푸코의 사유를 더욱 열성적으로 수용하면서, 미시 권력 분석가로서 푸코의 ‘초상’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의 한편으로, 권력에 대한 푸코의 논의가 보여주었던 정치성, 저항성은 한국에서 번역된 푸코의 논의인 『해테로토피아』의 인용 패턴을 통해 여성 연구자들의 주도로 더욱 확장되고 견고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단어: 푸코, 한국 현대문학, 디지털인문학, 구조적 토픽 모델링, KCI

1.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이론’의 위상, 그리고 미셸 푸코가 놓인 자리

학술은 무엇의 이름인가. 그리고 무엇이 학술을 학술이게 하는가. 근대 학술의 역사는 본래 학술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학술의 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신(또는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술적 실천의 양식을 갱신해 나가며 발전해 왔다. 한국 현대문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 현대문학 연구는 현대문학이 학술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학술장에서 지적 성과로 인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곧 현대문학 학술의 역사는 현대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 학술적 ‘연구’의 성과로 인정하게 할 만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의 역사이기도 하다.

현대문학 연구의 수많은 방법론 중에서도 ‘이론’(theory)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각별하다. 한국문학 텍스트를 외국문학 연구 성과나 철학·역사학·사회학·여성학 등 다른 분과 학문의 성과를 접목하여 해석하는 것은 같은 문학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더함으로써 그 연구 대상의 가치를 갱신하는 작업이자(박헌호, 2010: 180) 한국문학 텍스트

에 대한 해석을 통역 가능한 학술 언어로 환언함으로써 한국문학 연구 성과에 동시대 지성과의 보편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져 왔던 까닭이다(황호덕, 2012: 55).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후반 이래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에서 ‘이론’의 위상을 점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저작이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활용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가 미셸 푸코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인용해 왔던 수다(數多)한 이론가들 중에서도 미셸 푸코가 갖는 독특한 위상 때문이다. 푸코는 1980년대 중반경 김현, 오생근 등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 문학평론가들을 통해 한국문학 연구자들에게 처음 소개되었다. 그리고 푸코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루카치 죄르지(Lukács György),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등과 함께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이론가 중 한 명이었다(황호덕, 2012: 74-76). 특히 루카치, 벤야민 등 여타 이론가들의 피인용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반면, 푸코는 거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푸코는 현재에도 그와 같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학술장에서 특정 학자에게 30년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더해 막상 프랑스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푸코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한국불어불문학회, 2015: 276).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푸코에 대한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단순히 문학 연구자 일반의 관심으로 환원할 수 없다.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유독 푸코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한국적 맥락’이 개입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 내에서 푸코가 점하고 있

는 위치나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김형중의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 수용사 연구(2012), 김종길의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수용사 연구(2014), 채웅준의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수용사 연구(2017), 이정민의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수용사 연구(2017), 이상길의 피에르 부르디외 수용사 연구(2018), 이시윤의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수용사 연구(2022) 등 한국 학술장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사상가 내지 이론가들에 대한 수용사 연구가 이미 제출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푸코 역시 그러한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될 자격은 충분해 보인다.

한국에서의 푸코 수용사 연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오랜 시간동안 본격적으로 한국의 푸코 수용 문제에 천착해 온 연구자는 허경이다. 허경은 두 편의 연속된 논문에서 한국 학계에서 푸코가 수용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허경, 2010a; 허경, 2010b). 허경은 1980년대까지 독일철학, 영미철학, (비제도권의) 맑스주의적 철학으로 삼분되어 있었던 대한민국 서양 철학계가 1980년대 중후반 프랑스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선두주자가 푸코 수용이었음에 주목한다(허경, 2010a: 439-441). 그는 현실 마르크스주의 붕괴라는 사상적 공백 속에서의 ‘포스트맑스주의’적 관심을 프랑스 철학을 비롯한 푸코 ‘현상’의 주된 원인이자 한계로 지적하면서, 전체적이고도 균형 잡힌 방식으로 푸코 사유의 전모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

진태원(2012)은 『비정상인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주체의 해석학』 등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의 번역이 푸코 연구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하며, 이에 주목할 때 푸코 사상의

1)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을 메우고자 하는 모색”(이규현, 2009: 337)으로서의 푸코 수용, 푸코에 대한 총체적인 상의 부재 등은 연구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환적 국면을 재조명하여 ‘전체적 조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두 연구는 푸코 수용 경향성의 추가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몇몇 대표적 사례만을 바탕으로 하는 대체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데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허경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푸코 사유의 일반적 수용은 크게 보아 전문연구자 그리고 앞서 말한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관심에 의해 동시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나, “전자(전문연구자-인용자)는 푸코의 ‘고고학’적 시기인 1960년대 및 주체화의 시기인 1980년대가 강조되는 느낌이 있으며(이광래·이정우), 후자(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관심-인용자)의 경우에는 권력-지식이 강조되는 『감시와 처벌』의 시기인 1970년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이진경 등)”는 간결한 정리에 그치고 있다(허경, 2010a: 441). 진태원 역시 권력의 계보학을 실천한 연구로서 김진균·정근식의 연구를 수용사의 중요한 맥락으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푸코적인 연구”로서 권력에 접근했는가 하는 문제, 즉 개별적 연구에 대한 비판에 그치고 있다.

두 연구는 푸코 수용사에 천착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참조점이다. 다만 이들의 푸코 수용사 검토는 푸코 저작의 번역과 출판의 역사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푸코가 한국 학계 각 분야에서 어떤 지적 지평을 형성하고 있는가의 문제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철학 신드롬은 곧 이어 라캉·데리다·들뢰즈·부르디외·리퀴르·레비나스 등으로 중심축을 연이어 이동하며, 푸코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철학계에서는 평가되는 것에 반해(허경, 2010a: 443) 국문학에서는 정반대로 더욱(혹은 꾸준히) 푸코가 주목되어 왔다는 사실은 각 학계에서의 개별적 푸코 수용의 맥락과 그 양상을 확인해 볼 것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규현의 연구는 1980, 1990, 2000년대를 각각 푸코 수용의 분수령으로 설정하고 학위논문, 대담, 서평, 번역 등 출판물의 양적 변화를 검토하는 등 번역과 출판의 역사를 더욱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푸코 수용의 경향이 “페미니즘, 교육, 관광, 사회복지, 체육, 영화, 신학 등으로 확장”(이규현, 2009: 335)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용의 구체적 양상, 즉 정성적 분석을 시도했고, 이는 본고의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²⁾

허경, 진태원, 이규현 등의 기존 논의는 — 각자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 푸코 수용사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프랑스학’ 전공자인 이들의 관심사는 대체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푸코의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있다. 그렇기에 푸코의 저작을 부분적으로, 혹은 파편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은 이들에게 있어 푸코의 전체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푸코를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이규현, 2009: 345). 이러한 인식은 양적 통계상으로 푸코가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푸코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푸코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푸코가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가만이 아니다.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에게 있어 이론(가)들이란 애초에 본격적인 학술적 검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참조점이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에게 푸코의 텍스트는 직접적인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라기보

2) 이 논문이 2009년에 제출되었다는 점, 즉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규현이 지적한 경향의 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의 이론을 전유(appropriation)하고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해석의 지렛대이자 사유의 방법론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푸코의 초상이란 그것을 통해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현재를 다시 되돌아보기 위한 일종의 거울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이란 한국 현대문학 관련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이하 등재지)로 구성된 한국어 학술 생태계를 의미한다. 본고는 여기서 ‘학술장’의 정의에 있어,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field)이론을 참고하여 (사회)학계에서 활용되는 용어로, 상징권력이라는 내기물을 두고 행위자들이 “상호 협력하고 상호 각축하는 사회적 공간”(정수복, 2022: 371)이면서 행위자들은 “일정한 속성의 결합태”를 가지면서 “장으로의 진입에 근거와 정당성”(Bourdieu and Wacquant, 2015: 189)을 얻는다는 기존의 이해를 따른다. 현대문학 분야에서 가장 격렬하고 진보적인 각축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재적 장은 KCI 등재지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KCI 학술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대문학 학술장의 생태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사회과학 계열의 분과 학문에서는 SSCI 등재지를 비롯한 국제 학술지에서의 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과학 계열 중에서도 특히 한국학 계열의 학문에서는 여전히 KCI 등재지를 비롯한 한국어 학술지가 중요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KCI 등재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발행된 인문학 분야 논문들을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한국학 계열(한국어문학/한국사)의 논문이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병준, 2022).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학 분야의 양적 성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학 계열 연구자들이 비(非)한국학 연구자들에 비해 KCI 등재지를 통한 논문의

생산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학술적 풍토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KCI 등재지에 대한 검토는 한국학 학술장에서 지식의 유통 양상에 대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LOD(Linked Open Data)를 활용한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용’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의 새로운 ‘수용사’적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인용을 통해 주장과 담론을 설명 가능한 상태로 구축하는 연구자의 지적 작업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들이 ‘공유’ 혹은 ‘인정’하고 있는 지적 권위자들의 지형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진석·김병준·허예슬·최주찬·황호덕, 2023: 308). 특히 근 이십여 년 동안, 한국 현대문학 연구가 전통적인 텍스트, 작가 분석을 넘어, 복합적(학제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문화, 영화 등으로 탐구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푸코의 ‘지적 권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더욱 긴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문학을 (재)독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푸코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주목할 것이며, 한국 현대문학은 ‘어떤’ 얼굴의 푸코를 읽었는가, 그리고 ‘왜’ 여전히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푸코의 사상이 이론적 받침대나 사유의 방법론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론사회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사회와 이론』의 논문 서지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학계 내에서의 지식생산의 구조를 밝힌 연구가 있었다(이재민·강정환, 2011). 하지만 지식사회학 내에서도 이론 수용사 연구가 자주 시도된 바가 없는 만큼, 이 연구가 후속 연구를 위한 시론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데이터 처리 과정 및 분석 결과³⁾

1. 데이터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수집 및 선정 과정을 거쳤다. 가장 먼저 KCI에서 제공하는 API와 파일 요청⁴⁾을 통해, KCI 인문학 대분류 논문의 서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현대문학 대표 학술지 38종을 선정하였다.⁵⁾ 다만 한국 현대문학 학술지라 하더라도, 타 세부 전공(고전문학, 어학 등)의 논문도 함께 게재한 경우에는 제목과 초록 및 1저자의 전공을 모두 확인하여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008-2021년 게재 논문 총 11,941건(참고문헌 326,565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⁶⁾ 또한 연구자의 인구사회 정보는 논문의 1저자를 기준으로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3)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 Python/R 코드, 지면 한계로 포함하지 못한 각종 표는 아래 깃허브(GitHub)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ByungjunKim/FoucaultKoreanLiterature>

4) <https://www.kci.go.kr/kciportal/po/openapi/openReqDataList.kci>

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788편), 『현대문학이론연구』(787편), 『현대소설연구』(699편), 『비평문학』(674편), 『한국현대문학연구』(583편), 『한국문예비평연구』(555편), 『현대문학의 연구』(525편), 『상허학보』(467편), 『우리문학연구』(438편), 『민족문학사연구』(403편), 『국제어문』(364편), 『한국문학논총』(356편), 『한민족문화연구』(344편), 『여성문학연구』(342편), 『한국근대문학연구』(338편), 『우리어문연구』(335편), 『구보학보』(296편), 『한국언어문학』(272편), 『어문론집』(262편), 『국어국문학』(262편), 『우리말글』(259편), 『한국언어문화』(255편), 『비평과이론』(246편), 『아동청소년문학연구』(238편), 『사이間SAL』(235편),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227편), 『국어문학』(214편), 『반교어문연구』(188편), 『동악어문학』(158편), 『춘원연구학보』(139편), 『한국민족문화』(128편), 『배달말』(118편), 『동남어문논집』(101편), 『겨레어문학』(98편), 『돈암어문학』(98편), 『이화어문논집』(76편), 『청람어문교육』(62편), 『국문학연구』(11편)

6) 2008년부터 KCI 시스템에서 서지 정보(참고문헌 포함)를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범위를 설정했다.

2. 데이터 정제 과정 - 참고문헌

KCI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 중 KCI 논문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행본이나 해외 학술지를 인용한 경우 ‘식별화’ 작업이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참고문헌의 저자명이나 도서명도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푸코, 푸꼬, M.푸코 등) 식별화 작업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LOD⁷⁾제공하는 푸코의 단행본 고유 id를 참고하여 푸코 단행본 목록의 고유 id를 부여했다.⁸⁾ 이 작업은 API를 활용해 1차 자동화 후 연구자가 2차로 검수했다.

3. 푸코 단행본 정리

전술했듯, 본고는 번역사적으로 푸코 수용 양상에 대한 접근이 아닌, 연구자들이 어떤 얼굴의 푸코를 수용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푸코 사유의 추이에 따라 그의 저작을 시기별로 유형화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연구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통설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된 푸코의 저작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권력론보다는 지식비판이 두드러지는 고고학적 탐색 작업의 시기”인 1960년대 전기 사유를 담은 저작들을 1로,⁹⁾ “지식과 권력의 결탁 관계를 비롯한 권력 분석에 초점을 맞춘 계보학적 작업의 시기”인 1970년대 중기 사유를 담은 저작들을 2로,¹⁰⁾ “1980년대의 전반기에 걸쳐 말기의 사유를 보여주

7) <https://lod.nl.go.kr/>

8) 미셸 푸코 LOD: <https://lod.nl.go.kr/page/KAC199609116>

9) 『광기의 역사』, 『정신병과 심리학』,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 『헤테로토피아』, 『지식의 고고학』, 『칸트의 인간학에 관하여』, 『상당한 위험: 글쓰기에 대하여』, 『문학의 고고학』

10) 『담론의 질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정신의학의 권력』, 『비정상인들』, 『감시와 처벌』,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성의 역사(1) 앞의 의지』, 『안전 영토 인구』, 『생명 관리 정치의 탄생』,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푸코의

는 세 번째 단계는 계보학적 연구 방법을 견지하는 가운데 관심의 초점을 옮겨 고대 세계의 주체화 과정을 천착하고 “삶의 미학” 또는 아름다운 삶을 역설하는 윤리적 문제의식의 시기”인 1980년대의 후기 사유를 담은 저작들을 3으로,¹¹⁾ 그리고 타 연구자들에 의한 여러 시대 저작의 편저(이하 편저)는 4¹²⁾로 구분하여 라벨링하였다(이규현, 2009: 344-345).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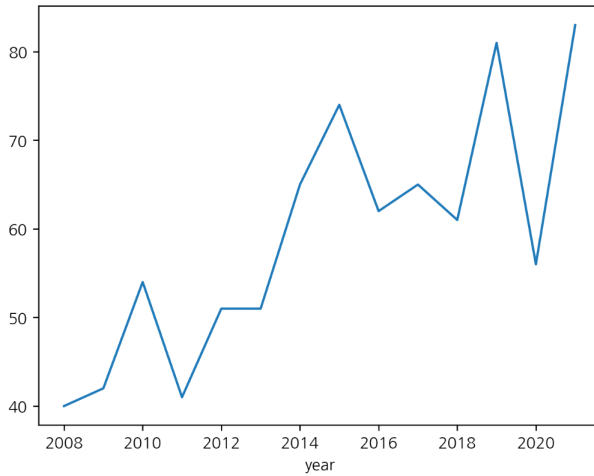
4. 통계 분석 결과

우선 푸코의 저작을 단 1건이라도 인용한 논문은 624건(전체 논문의 약 5.2%)이었다. 또한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푸코의 피인용수는 2020년 급감소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이 연구의 전체 대상인 한국 현대문학의 KCI 논문 수가 2015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그림 2> 참조), 푸코의 인용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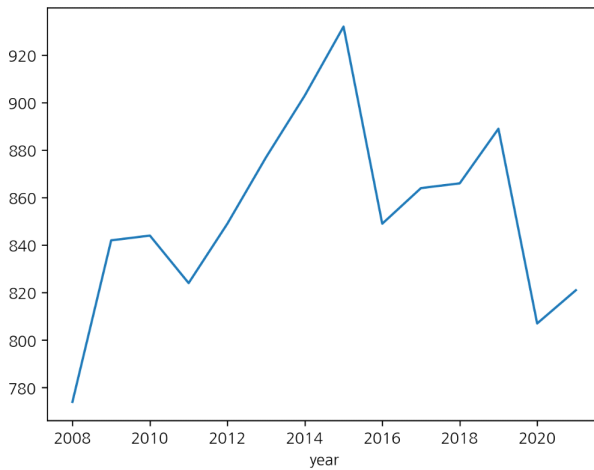
참스: 미셸 푸코, 듯치오 트롬바도리와의 대담,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

- 11) 『주체의 해석학』,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성의 역사(3) 자기 배려』, 『자기의 테크놀로지』, 『비판이란 무엇인가』, 『담론과 진실』, 『성의 역사(4) 육체의 고백』
- 12)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 정치와 페미니즘』,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 13) 위의 시기적 구분에 대한 설명은 이규현의 논문에서 인용하였으나, 이는 이규현도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술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설’임을 밝혀둔다.

〈그림 1〉 푸코 인용 논문 게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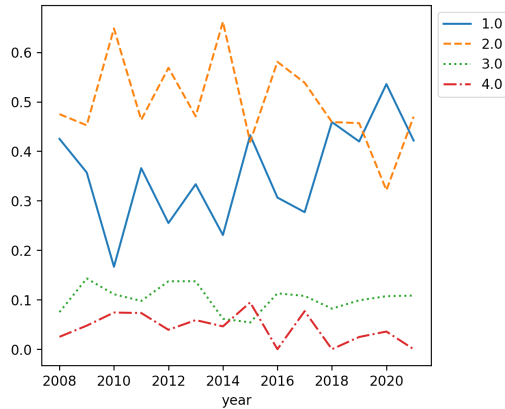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대상 전체 논문 게재 추이



전기 저작 약 35.6%, 중기 저작 약 49.8%, 후기 저작 약 10%, 편저 약 4%의 인용 비율로, 중기(2)〉전기(1)〉후기(3)〉편저(4) 순의 저작 인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까지 전기저작보다 중기저작이

많이 인용되고, 2018년부터 비슷하게 인용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이 주로 인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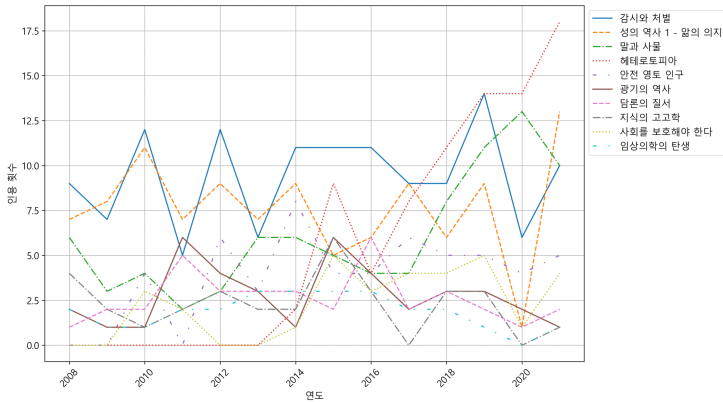
〈그림 3〉 푸코의 시기별 저작 인용 양상



〈표 1〉 푸코 저작의 인용 순위와 횟수

순위	저작명	인용 횟수
1	『감시와 처벌』	132
2	『성의 역사 1: 얇의 의지』	107
3	『말과 사물』	85
4	『헤테로토피아』	80
5	『안전 영토 인구』	54
6	『광기의 역사』	39
7	『담론의 질서』	37
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32
9	『지식의 고고학』	32
10	『임상의학의 탄생』	26
11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5
12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25
13	『자기의 테크놀로지』	19
14	『권력과 지식』	17
15	『주체의 해석학』	15
16	『문학의 고고학』	11
17	『비정상인들』	10

〈그림 4〉 연도별 Top 10 저작 피인용 추이



〈표 1〉과 〈그림 4〉는 연도별로 저작 피인용 추이를 나타낸다. 『감시와 처벌』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헤테로토피아』 인용의 급증이라는 인용 양상의 특징적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푸코를 인용하는가? 인구사회 정보를 토대로 하여 성별과 세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통계치를 확인했으며(〈표 2〉, 〈표 3〉),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푸코를 더 많이 인용하였다(** $p < .01$, 약 1.2%p 차이). 세대별로 보았을 때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푸코 인용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큰 차이는 없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역시 세대별 인용 횟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연구자의 성별에 따른 푸코 인용 여부(횟수 및 비율)

성별	푸코 비인용 횟수	푸코 인용 횟수 및 비율
남	5,341	269 (4.79%)
여	5,167	326 (5.93%)
합계	10,508	595 (5.35%)

〈표 3〉 연구자의 세대에 따른 푸코 인용 여부(횟수 및 비율)

세대	푸코 비인용 횟수	푸코 인용 횟수 및 비율
40년대생	102	5 (4.67%)
50년대생	1007	38 (3.63%)
60년대생	3535	194 (5.20%)
70년대생	4228	260 (5.79%)
80년대생	1428	88 (5.80%)
90년대생 이후	134	7 (4.96%)

〈표 4〉 연구자의 성별에 따른 푸코 저작 인용 횟수 및 비율

순위	저작명	남		여		합계 (횟수)
		횟수	비율	횟수	비율	
1	『감시와 처벌』	54	43.55%	70	56.45%	124
2	『성의 역사 1: 삶의 의지』	45	43.69%	58	56.31%	103
3	『말과 사물』	48	59.26%	33	40.74%	81
4	『헤테로토피아』	30	40.00%	45	60.00%	75
5	『안전 영토 인구』	20	39.22%	31	60.78%	51
6	『광기의 역사』	15	42.86%	20	57.14%	35
7	『담론의 질서』	19	54.29%	16	45.71%	35
8	『지식의 고고학』	16	53.33%	14	46.67%	30
9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6	53.33%	14	46.67%	30
10	『임상의학의 탄생』	9	34.62%	17	65.38%	26

〈표 5〉 연구자의 세대에 따른 푸코 상위 10개 저작 인용 횟수 및 비율

순위	저작명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합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1	『감시와 처벌』	6	4.92%	46	37.70%	48	39.34%	22	18.03%	122
2	『성의 역사 1: 삶의 의지』	11	11.46%	36	37.50%	44	45.83%	5	5.21%	96
3	『말과 사물』	7	8.64%	27	33.33%	38	46.91%	9	11.11%	81
4	『헤테로토피아』	4	5.41%	25	33.78%	30	40.54%	15	20.27%	74
5	『안전 영토 인구』	0	0.00%	9	17.65%	28	54.90%	14	27.45%	51
6	『광기의 역사』	4	11.76%	9	26.47%	18	52.94%	3	8.82%	34
7	『담론의 질서』	1	3.03%	11	33.33%	16	48.48%	5	15.15%	33
8	『지식의 고고학』	1	3.33%	11	36.67%	17	56.67%	1	3.33%	30
9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	3.45%	4	13.79%	20	68.97%	4	13.79%	29
10	『임상의학의 탄생』	0	0.00%	11	42.31%	9	34.62%	6	23.08%	26

5. 구조적 토픽 모델링

통계 분석에 이어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 논문의 제목과 초록 텍스트를 활용해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텍스트에서 주제(topic) 군집을 추출해 어떤 주제들이 분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주로 대량의 말뭉치(신문기사, 서적 등)를 대상으로 활용하는데 논문 초록 텍스트의 경우 연구 경향을 거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다(설동훈·고재훈·유승환, 2018). 이 중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이하 STM)은 여러 토픽 모델링 중 문서의 메타 정보(저자, 분류, 시간 등)를 명목 혹은 연속 변수로 투입해 토픽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방법론이다(Roberts, Stewart, Tingley, Lucas, Leder-Luis, Gadarian, Albertson and Rand, 2014). 이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2개의 모델을 구축하였고, ‘모델 1’은 연구 대상 전체 논문에서 푸코 인용이라는 변수가 연구 주제(토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며, ‘모델 2’는 푸코 인용 논문 내에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미한 변수였던 연구자의 성별에 따라 연구 주제(토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다.¹⁴⁾ STM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자가 설정한 변수와 토픽 비율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목 변수에 따른 pvalue를 표기하였다.

14) R의 stm 패키지를 활용하였다(버전 1.3.6.1)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stm/index.html>

〈표 6〉 구조적 토픽 모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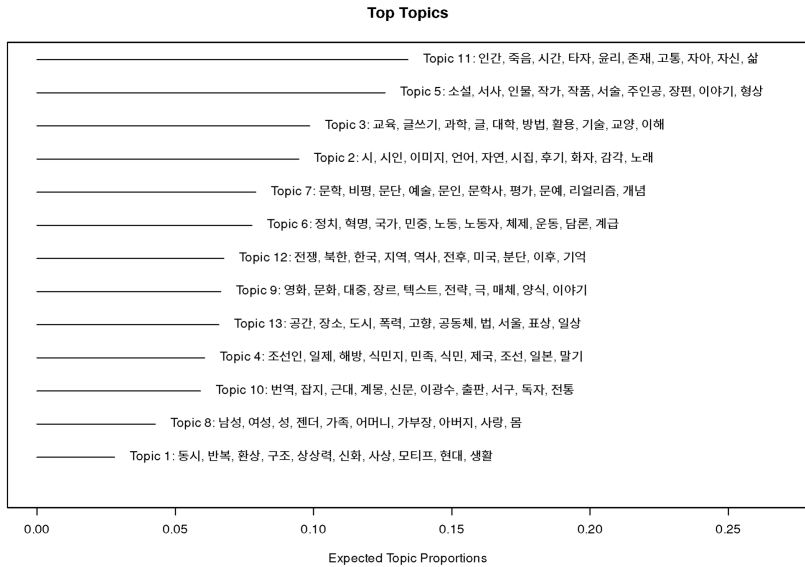
모델	모델링 대상 문서	대상 텍스트	명목변수
1	한국 현대문학 연구 전체	제목, 초록	푸코 저작 인용여부 (인용/비인용)
2	푸코 인용논문		연구자 성별(남/녀)

1) 모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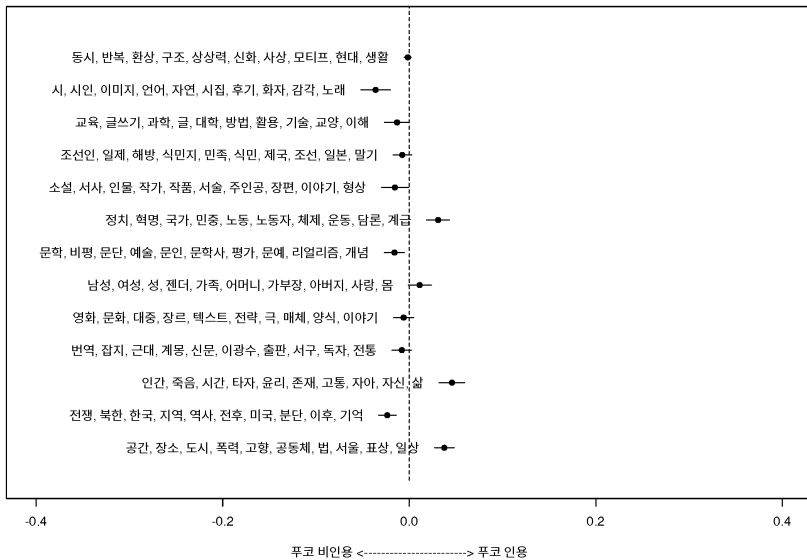
searchK 함수를 통해 최적화된 토픽 개수는 13개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3개의 토픽을 추출하였다(〈그림 5〉).¹⁵⁾ 푸코를 인용한 논문과 인용하지 않은 논문 간의 주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명목변수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6〉). 푸코 인용 논문은 피인용 논문 대비해서 세 개의 토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현됐다. T6(정치/담론, *** $p < .001$), T11(타자/윤리, *** $p < .001$), T13(공간/표상, *** $p < .001$)이다. 이 세 가지 주제는 푸코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기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15) 토픽 키워드 추출 기준은 STM에서 추천하는 FREX(Frequency and EXclusivity)를 기준으로 하였음.

〈그림 5〉 한국 현대문학 전체 논문 토픽 모델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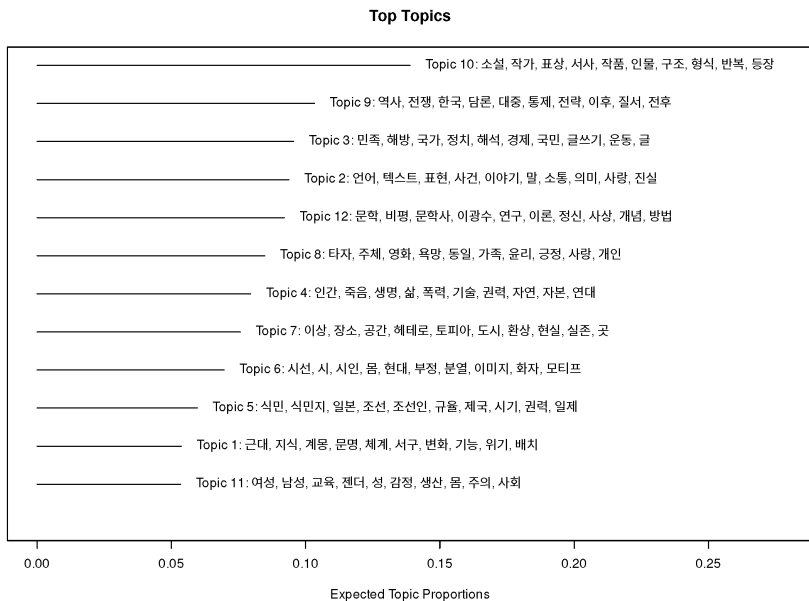
〈그림 6〉 한국 현대문학 전체 논문에서 푸코 인용 여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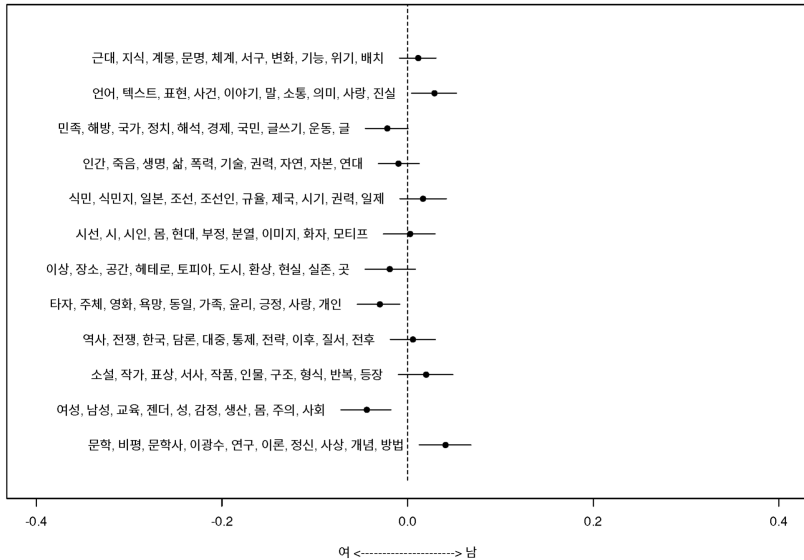
2) 모델 2

모델 1과 동일하게 searchK 함수를 통해 최적의 토픽 개수를 확인한 결과 12개의 토픽이 최적 토픽으로 도출되었다(〈그림 7〉). 그리고 성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 결과 푸코 인용 논문 안에서 성별에 따른 주제 분화가 있었다(〈그림 8〉). 여성은 T8(타자/주체, * $p < .05$), T11(젠더, ** $p < .01$) 토픽이 유의미했으며, 남성은 T2(언어/텍스트, * $p < .05$), T12(비평/문학사, ** $p < .01$) 토픽이 유의미했다. 같은 푸코 인용 논문에서도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주제가 분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델 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타자’라는 키워드가 여성 연구자들의 인용 경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푸코 인용 논문 토픽 모델링 결과



〈그림 8〉 푸코 인용 논문에서 성별에 따른 효과



III. 데이터 해석

2014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푸코가 더욱 ‘요청’된 사정은, 보다 폭넓은 맥락·변수들을 바탕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맥락은 2014년 이후 한국 사회의 ‘사건’들이 문학의 사회적 역할(이른바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게 했다는 것일 테다. 요컨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집회와 강남역 살인 사건, 미투(MeToo) 운동 등 일련의 ‘사건’들은 “정동적 모먼트”로서 한국/문학장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으며, 기왕의 해석의 기울을 심문에 부치고 텍스트를 ‘정치적’으로 의미화하는 시각의 (재)출현을 부추겼다(김미정, 2019).

이 시기는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권명아·권보드래·백문임·소

영현 · 신형기 · 이영미 · 이해령 · 임태훈 · 정여울 · 천정환, 2013)를 비롯하여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강지윤 · 권보드래 · 김미정 · 김은하 · 류진희 · 심진경 · 오혜진 · 이진경 · 이해령 · 장영은 · 정미지 · 조서연 · 허윤, 2013) 등 한국문학(사)을 새롭게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제출되던 시기였으며, 2013-2022년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에서 주목된 키워드 중 하나가 ‘정치’였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이재연 · 한남기, 2022: 30).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 이후 ‘문학장’에서 제기된 ‘지금-여기’의 문학 ·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움직임과 함께, ‘학술장’에서도 사회비판적 함의를 가지는 연구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꾸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한 학술장 내 움직임은 『헤테로토피아』의 번역과 함께 푸코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촉발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푸코를 인용하지 않는 논문보다 푸코를 인용하는 논문에서 주로 주목되는 주제군이 ‘정치, 혁명, 국가, 민중, 노동, 노동자, 체제, 운동, 담론, 계급’ 주제, ‘인간, 죽음, 시간, 타자, 윤리, 존재, 고통, 자아, 자신, 삶’ 주제, ‘공간, 장소, 도시, 폭력, 고향, 공동체, 법, 서울, 표상, 일상’ 주제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러한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에 일어났던 일련의 변화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양적 분석과 함께 실제 논문에서 인용된 부분을 확인하는 질적 분석 작업을 통해 실제 인용의 양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정한 이론을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이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곤 한다. 따라서 각주는 연구자들이 푸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총 819건의 참고문헌 중 본문 인용 없이 참고문헌에만 기재한 경우 126건을 제외하고, 693건의 인용문이 포함된 본문과 각주의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며, 데이터 시트에 기입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고아의식은 그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근대 산업 사회의 육체, 시계-시간의 노동과 기계적인 동작관리, 근면과 성실, 합리성, 생산성, 과학주의와 금욕 등을 체화한 존재로 거듭날 때⁵⁾ 선각자 의식,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5) 근대 사업 사회가 파놉티콘이라는 감시 원리의 내면화를 통해 시공간과 동작 관리를 이루어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출판, 2003 참고.

그래서 그것은 억압적인 금기의 체계인 아버지(“국가”)와 대립하는 “구멍”, “실패놀이”, “니르바나”, “죽음”, “무(無)”, “동굴”, “공(空)” 등 “황홀”한 상상력과 교차한다.²⁵⁾ 이 혼종적이고 이질적 공간은 ‘현실적이면서 가상적인 거울처럼’ 안과 밖도 아닌 곳, 안이면서 밖인 “다른 공간들”이다.²⁶⁾

26) “거울은 헤테로토피아처럼 작동한다. 그것이 내가 거울 안의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게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기에 그렇다. 그 자리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며, 그것이 지각되려면 [거울] 저편에 있는 가상의 지점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Michel Foucault, 이상길 옮김, 「다른 공간들」,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48쪽; 41-58쪽).

위와 같이 정돈된 데이터를 정성적(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그려온 푸코의 초상을 거칠게나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 푸코의 권력론으로 본 한국 근현대문학 『감시와 처벌』의 정전화와 생명정치

위에서 언급한 푸코를 인용하지 않는 논문이 주로 채택하는 토픽들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작가나 작품의 정치성·저항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푸코를 주로 인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경향은 이규현(200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푸코가 한국에 소개되고 수용될 무렵 가장 이목을 끌었던 푸코의 논의가 권력, 특히 미시 권력에 대한 논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외국문학』 1985년 봄호에 실렸던 오생근의 「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가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푸코 규정으로서 추후의 수용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이규현, 2009: 337)했으며 푸코의 권력론은 사실 “1990년대 푸코 수용의 중심 영역”이었다(이규현, 2009: 341). 〈그림 2〉에서 확인했듯 푸코 소개 이후 30여 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문학 연구에서 푸코 사상의 두 번째 시기 즉, “지식과 권력의 결탁 관계를 비롯한 권력 분석에 초점을 맞춘 계보학적 작업의 시기”¹⁷⁾의 저작을

16) 이러한 경향은 정치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온 푸코의 후기 사유의 중심인 ‘자기 배려’ 인용 양상에서도 일부 이어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푸코는 주체의 해석학에서 ‘자기 배려’와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타자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대상인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명한다. 그러나 푸코의 ‘자기배려’는 더 이상 주체 내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반대로 주체가 모르고 있었고 또 주체 내에 거주하지도 않던 진실로 주체를 무장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즉 **푸코가 말하는 유사-주체는 권력의 대상이 되는 것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주체를 위한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에도 저항하는 주체이다.** 근대적인 주체, 자기를 인식하기 위한 주체가 아니라, 그러한 주체가 주체 내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진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체인 것이다. 심청의 주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타자성을 거부하고,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정을 통해 ‘효녀’의 진실을 밝혀낸다. ‘효녀’로서 길을 떠났지만 기나긴 여행 후에 다시 돌아온 청이는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 버텨왔던 주체이면서 동시에 ‘효’를 만들어냈던 그 시대와 공간의 진실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왜 그토록 ‘효’ 이데올로기는 강력해야 했으며, 왜 조선은 식민지라는 굴욕의 역사 속으로 걸어가야 했는지를 심청의 외로운 길속에서 우리는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태숙, 2019: 248-249)

17) “그의 저술은 세 시기로 나누어지는 것이 통설인데, 시기별로 방법론과 주체의 면에서 초점이 이동한다. 1960년대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는 권력론보다는 지식 비판이 두드러지는 고고학적 탐색 작업의 시기이고, 대체로 1970년대를 포괄하는 두 번째 단계는 지식과 권력의 결탁 관계를 비롯한 권력 분석에 초점을 맞춘 계보학적 작업의 시기이며, 1980년대의 전반기에 걸쳐 말기의 사유를 보여주는 세 번째 단계는 계보학적 연구 방법을 견지하는 가운데 관심의 초점을 옮겨 고대 세계

가장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49.8%).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이지 않고 국지적인 미세한 변화를 “권력의 미시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중에서도 특히 『감시와 처벌』이 특정 시대, 성별, 세대 등에 국한되지 않고 가장 많은 피인용 횟수를 기록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은 ‘무엇’을 규명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을 인용했는가? 이를 요목화해 보면 ①규율 권력을 내면화한 순종적 신체가 작가에 의해 포착되어 문학에 비판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에 주목하거나, ②작품 속 인물이 가지거나 가지지 못한 자유가 푸코식의 시선 권력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에 주목하거나, ③공간적 배경에서 직접적·은유적으로 형상화된 감시 체제를 판옵티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을 인용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식민 권력에서 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는 ‘일망 감시체제’가 작동되어 온 사회로 보고, 이러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반영한 문학을 의미화함으로써 문학의 정치성을 논증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감시와 처벌』은 연구자의 성별, 세대와 관계없이 가장 많이 인용된 푸코 저작이었다. 이는 곧 푸코의 ‘권력론’이 문학 텍스트에 반영된 한국 사회의 시공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주류적 관점의 위상을 갖고 있음을 증거한다.

『감시와 처벌』 외의 저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인용되는 또 다른 개념은 중기 푸코의 ‘생명권력’, ‘생명정치’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안전 영토 인구』, 『성의 역사 1: 삶의 의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등에서 주로 인용된 생명정치 개념은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

의 주체화 과정을 천착하고 “삶의 미학” 또는 아름다운 삶을 역설하는 윤리적 문제 의식의 시기이다. 따라서 수용자-연구자가 어느 시기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수용의 양상 또는 주제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규현, 2009: 344-345)

두는' 정치의 작동을 보여준다. 이 개념은 『감시와 처벌』과 달리 식민지기 문학보다는 주로 해방 이후에 출간된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에서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개발 독재 체제 당시 경제적 지식에 기반한 통치 체제가 작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때로는 이청준(이수형, 2017), 김승옥(이시성, 2017)과 같은 작가들이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으로서의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얻었다. 미시 권력가로서의 푸코의 얼굴이 전반적으로 인용되는 양상을 『감시와 처벌』이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중기 저작에서도 '생명정치', '생명권력'이 지배적으로 인용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식민지기보다는 해방 이후 시기에서 주로 설명된다는 점은 한국문학에 반영되거나 예비·암시된 '정치적 주체의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¹⁸⁾

“푸코의 권력론이 이처럼 폭넓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여태까지 근대의 정치적 사유에 결코 포착되지 못한 근대적 권력의 실상을 푸코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규현, 2009: 342)이었다는 이규현의 지적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한다면, 『헤테로토피아』를 위시로 한 '새로운 푸코 이론'에 대한 주목은 '무엇'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는지 그 인용 패턴의 확인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남성 연구자들보다 여성 연구자들에게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푸코 인용 양상의 유의미한 성차(性差) 및 다른 전기 저서들의 인용 패턴과 결부되어 설명될 필요가 있다.

18) 한 연구자는 이 개념이 식민지기 말에 발표된 문학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비경제적 영역을 경제적 영역을 다루는 방식으로 치환하여 분석하는 주체, 경제적 품행을 바탕으로 내적 합리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 스스로의 삶을 기업가가 기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듯 다루는 주체라는 의미”(황지영, 2016)라는 큰 틀에서 푸코를 인용한다. 인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해야겠지만, 이 작업은 결론에서 언급한바, '이론의 네트워크' 구축 이후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헤테로토피아’라는 반(反)공간의 발견

이상길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관련 논의를 모아 번역한 편역서 『헤테로토피아』(문학과지성사, 2014)는 출판 직후부터 피인용 횟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에는 푸코의 저서 중에서도 현대문학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저작(18건)이 되었다. 푸코의 다른 저작들이 한국어 번역본 출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피인용 빈도를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헤테로토피아』의 인용 패턴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유토피아’와는 달리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소성과 이질성을 내포한 문학적 시공간에 비교적 쉽게 적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헤테로토피아’는 앞서 살펴본 담론들과는 달리 푸코가 미처 끝마치지 못한 미완의 개념이자 일종의 사유 실험이라는 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어판 번역자(이상길) 또한 ‘미완’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러한 점으로 인해 또 다른 사유 실험을 촉발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확실히 그것들은 푸코의 주저가 보여주는 꼼꼼한 사료 분석이라든지 세심하면서도 엄격한 글쓰기를 결여하고 있다. 완성된 연구라기보다는, 사유의 시도essai 속에서 태어난, 말의 충실한 의미에서의 에세이essai. 거기서 군데군데 엿보이는 수사학적인 과장 논리의 비약과 결합, 피상적인 사례 인용 등은 텍스트 생산의 맥락이나 형식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글들을 별 중요성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 드페르의 해체가 뒤쫓고 있는, 그것들의 수용의 역사,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재이식”의 궤적은 우리의 선부른 판단을 경계하게 만든다. 이 강연 원고들에 담긴 개념과 아이디어는, 그 모호하고 허술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덕분에 수많은 새로운 사유와 해석과 연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오랫동안 철학만이 아닌 문학, 예술, 도시공학, 지리학, 건축학, 문화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저자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꼬리 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은 어떤 텍스트가 지니는 가치를 단순히 내적인 ‘엄밀성’이나 ‘과학성’의 척도만으로 재기 어렵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준다. 이 미완의 원고들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선, 사유 혹은 상상의 지평을 열어젖히는 힘이 있었던 것이다. (Foucault, 2014: 131-132,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에서 언급된 헤테로토피아를 적용한 새로운 사유란, 이상길의 각주에도 제시했던 것처럼, 2012년 개설되어 “푸코의 이 개념(헤테로토피아: 인용자)에 영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들의 유용한 서지 목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에서의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관심과 그것의 인용 패턴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상길의 분석은 일종의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고에서 KCI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악한 ‘헤테로토피아’ 개념의 적용 양상 역시, 헤테로토피아의 ‘미완성(性)’으로 인해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헤테로토피아에 내포한 성질 중에서도 반(反)공간적 측면이 ‘정치적 개념’으로서 지배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헤테로토피아’는 알레고리적 공간에 반(反)공간으로서의 정치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에 의미화되지 못했던 문학적 시공간을 가시화하고 의미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문학 텍스트에 비판적으로 반영된, 섬세하게 퍼져있는 미시 권력 분석을 위해 푸코가 지배적으로 인용되는 한편, 2014년 『헤테로토피아』의 출간은 정상성 혹은 질서로부터 벗어난 공간을 정상성에 이의제기하는 공간들로 의미화하고, 이를 주목하기 위한 또다른 인용 패턴으로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 ‘헤테로토피아’의 새로운 인용 패턴이 남성 연구자들보다는 여성 연구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상위 10권의 저작 인용 패턴 및 성별 토픽 경향성과 나란히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드러나는 통계치에서 카이제곱 검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듯, 푸코 인용 논문을 제목과 초록을 원자료로 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했을 때, 성별에 따른 토픽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분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감시와 처벌』을 제외하고 남성 연구자들이 여성 연구자들보다 더 많이 인용하는 저서는 『말과 사물』, 『담론의 질서』, 『지식의 고고학』,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이며, 남성 연구자들은 ‘시, 시인, 이미지, 언어, 자연, 시집, 후기, 화자, 감각, 노래’ 주제 묶음과, ‘전쟁, 북한, 한국, 지역, 역사, 전후, 미국, 분단, 이후, 기억’ 주제 묶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 연구자들이 남성 연구자들보다 더 많이 인용하는 저서는 『성의 역사 1: 얇은 의지』, 『헤테로토피아』, 『안전 영토 인구』,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이며, ‘남성, 여성, 성, 젠더, 가족, 어머니, 가부장, 아버지, 사랑, 몸’ 주제 묶음과 ‘인간, 죽음, 시간, 타자, 윤리, 존재, 고통, 자아, 자신, 삶’ 주제 묶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그중에서도 『헤테로토피아』와 함께 피인용 횟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과 사물』의 인용 양상을 중심으로 전기 사유의 인용 경향을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말과 사물』에서 ‘에피스테메’ 개념보다 유토피아 혹은 헤테로토피아 개념이 더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특히 전자는 남성 연구자들이 더 많이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유토피아 혹은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여성 연구자들이 더 많이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은 여성 연구자들의 『헤테로토피아』 인용 양상과 함께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남성 연구자들과 여성 연구자들 간의 푸코 인용 양상 차이는 연구자의 성별에 따라, 그들이 인식하는 푸코의 초상에 다소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연구자들이 젠더의 권력 문제에 대한 푸코의 논의를 남성 연구자들보다 더 인용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윤리나 타자, 존재 등 푸코의 후기 사유에 가까운 논의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실제 인용 패턴을 확인한 결과, 여성 연구자들이 주로 주목해 왔다고 여겨지는 ‘지금-여기’의 문제(오자은, 2019: 49) 중에서도 (주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장애인, 이주여성, 위안부 등의 소수자성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에 푸코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연구자들이 『광기의 역사』를 많이 인용하는 패턴 역시 이러한 연구 경향성에 맞닿아 있다. 이것은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 푸코 인용자 중에서도 남성 연구자들은 푸코를 전통적인 문학사 연구에 활용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연구자들이 반(反)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에 주목하는 것은 정상 공간으로부터 ‘소외’된 공간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것이야말로 『헤테로토피아』가 촉발한 ‘헤테로토피아’ 발견을 위한 한국문학 학술장에서의 시도이자 실험의 흔적들로 읽어낼 수 있겠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푸코의 초상, 한국 문학 학술장의 성좌 그리기의 초석

푸코 인용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되었던 세 개의 토픽(정치/담론, 타자/윤리, 공간/표상)을 다시 상기해 보자면, 한국 현대 문학 학술장에서는 지배적인 ‘정치’적 인용 패턴의 연장에서 소외된 ‘타

자'의 '공간'의 저항성을 발견하고자 푸코를 인용해왔다고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겠다.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발견한 푸코는 정치적, 저항적 얼굴로서의 푸코였다. 잘 알려져 있듯 푸코의 사유에서 근대문학의 기원은 언어의 위상으로부터 설명되지만(고봉준, 2017: 8-9), 흥미롭게도 혹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현대문학 연구자들은 근대문학 내지는 근대어 자체에 대한 푸코의 사유보다, 권력이나 정치에 대한 푸코의 사유를 더욱 열성적으로 수용하면서, 미시 권력 분석가로서 푸코의 '초상'을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 1990년대 초 푸코 수용 양상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재확인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번역된 『헤테로토피아』의 인용 패턴을 검토해봄으로써, 권력에 대한 푸코의 논의가 보여주었던 정치성, 저항성에 대한 인용이 더욱 확장되고 견고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상적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성질을 내포한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문학·문화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는 여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규현은 푸코의 사유가 문학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포스트모더니즘주의자들에 의해 비대해진 이론 하에 문학의 '다시 읽기'가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이규현, 2009: 331). 물론 문학 연구자의 푸코 활용이 모두 문학 연구에 부적절한 방식으로만 활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충분히 분석되지는 못했지만, 2008년 이후 그중 도드라지는 사례로서 '이청준'이 유독 푸코의 이론으로 많이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명 1996년 나병철의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이청준 문학에 기입된 정치적 사유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다(나병철, 1996). 이러한 사례는 이청준의 재발견으로서 평가받을 필요가 있으며, 문학이 포착해낸 미시 권력은 하나의 네트워크이자 푸코 전반의 사유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청준론의 흔적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다시 읽기'로서 평가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대문학장 내부에서도 드물게나마 푸코 인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해 푸코의 이론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상투화되고 있다는 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규현의 지적은 여전히 문학 연구자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이다.

물론 제국과 식민의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코의 판옵티콘에 기반한 시각적 감시 권력프레임과 생명정치(bio-politics) 이론은 여전히 유용하다. 식민지 제도 자체가 관찰과 통제에 최적화된 시각적 감시 체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 중심적 구도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어내면 제국의 기획과 의도를 그대로 따라 재독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만다. 식민지 연구의 제도사나 정책사 연구뿐 아니라 담론 분석 역시 어느 시점부터 기시감이 느껴지게 되는 이유이다. (김성연, 2019: 237)

김성연이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의 방법론적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곧 이어 그에 기반한 식민 체제 분석들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을 토로하는 장면은 흥미롭다. 김성연 역시 푸코의 이론을 활용한 식민 체제 분석이 제국의 통치 체제를 시각화하여 연구 담론의 대상으로 삼는 데 기여해왔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식민 체제에 대한 특정한 독법을 답습하게 함으로써 식민 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출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은, 푸코의 저작에 대한 파편적 인용 및 활용에 대한 학계 내부의 성찰적 움직임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푸코 인용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이 그 ‘대체’ 혹은 ‘보완’으로서의 또 다른 해외 이론(가)의 활용을 모색하곤 한다는 점에서, 추후 이론 수용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⁹⁾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서구 이론을 참조했다는 것 자체는 평가 이전에 역사적 실재로서 인정해야 할 현상이다.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한국적 방법론’의 부재 혹은 미발견 상태에서 외부의 이론을 참고해 나감으로써 만들어 갔던 성과들을 추적함으로써 이론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푸코 외의 다른 이론가들에게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연구자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인용과 피인용을 통해 구축했을 학술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봉준. 2017. “미셸 푸코의 ‘근대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동남어문논집』. 44: 5-25.
- 권명아 · 권보드래 · 백문임 · 소영현 · 신형기 · 이영미 · 이혜령 · 임태훈 · 정여울 · 천정환. 2013.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한국 현대문학

19) 본 연구에 대해 한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질적 연구의 보완을 위해 성별/세대 이상의 실제 그룹 특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실히 지적해 주셨다. 이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이 연구가 충실히 보완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와 같은 ‘그룹화’가 (비단 ‘푸코의 초상’만 본다고 할지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문학장 내에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문학 비평을 통해 드러내고 간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비판적 성향의 학자 그룹, 혹은 그러한 지적 전통”은 추후 연구의 장르, 시기, 키워드 등 또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고, 푸코와 함께 인용된 학자들을 네트워크의 구성을 그린 후 그 결과가 분석되고 해석될 때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푸코의 초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술적 네트워크가 그려진 후에 연구자 그룹의 공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확장할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사의 해체와 재구성』, 2013.
- 강지윤 · 권보드래 · 김미정 · 김은하 · 류진희 · 심진경 · 오혜진 · 이진경 · 이해령 · 장영은 · 정미지 · 조서연 · 허윤. 2018.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 김미정. 2019. 『움직이는 별자리들』. 갈무리.
- 김병준. 2022. “Mapp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 humanities: Bibliographic data analysis of humanities journal articles in the Korea citation index, 2004-2019.”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연. 2019.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신경 절연과 감각의 회복: 식민지 소설에서 후각 주체의 부상이 갖는 의미”. 『구보학보』 23: 233-264.
- 김종길. 2014. “국내 인문사회과학계의 니클라스 루만 연구: 수용 추이, 현황 및 과제”. 『사회와 이론』 25: 111-152.
- 김형중. 2012. “Che Vuoi, Jacques Zizek?: 현대 정신분석학과 한국 문학비평”. 『인문학연구』 44: 167-191.
- 나병철. 1996. “잔혹한 이성과 권력의 미시물리학”. 『비평문학』 10: 65-88.
- 박헌호. 2010. ““문화연구”의 정치성과 역사성: 근대문학 연구의 현황과 반성”. 『민족문화연구』 55: 157-188.
- 부르디외 · 바캉(Pierre Bourdieu and Lóic J. D. Wacquant). 2015.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 사유의 지평』. 이상길 역. 그린비.
- 설동훈 · 고재훈 · 유승환. 2018. “한국사회학회와 사회학연구, 1964-2017년: 한국사회학회 발표 논문의 연구분야별 내용분석”. 『한국사회학』. 52(1): 153-213.
- 오생근. 1985. “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 『외국문학』 1985년 봄호: 114-133.
- 오자은. 2019.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여성문학연구』 49: 30-59.
- 이규현. 2009. “문학의 위기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 푸코의 수용을 중심으로.” 이진우 · 이규현 · 김용기 · 박성창 · 김종욱 · 문혜원. 『한국근현대문학의 프랑스문학수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길. 2018. 『아틀라스의 발: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부르디외 읽기』. 문학
과지성사.
- 이수형. 2017. “1960~70년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중층성: 주권권
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4:
471-497.
- 이시성. 2017. “김승옥의 ‘60년대식’ 생존방식”. 『한국문학논총』 76: 375-404.
- 이시윤. 2022. 『하버마스 스캔들: 화려한 실패의 지식사회학』. 파이돈.
- 이재민 · 강정환. 2011. “지식생산의 구조와 이론사회학의 위상: ‘사회와 이
론’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2004-2010”. 『사회와 이론』 19: 89-144.
- 이재연 · 한남기. 2022. “논문 제목과 주제어의 공기어 네트워크로 본 『상
허학보』의 30년”. 『상허학보』 66: 11-56.
- 이정민. 2017.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 개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숙. 2019.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과 ‘효녀’ 서사의 재창조: 심청이가
쓰는 아시아 지중해사”. 『여성문학연구』 46: 227-254.
- 정수복. 2022. 『역사사회학의 계보학: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 4』. 푸른역사.
- 진태원. 2012. “푸코에 대한 연구에서 푸코적인 연구로: 한국에서 푸코 저
작의 번역과 연구 현황”. 『역사비평』 99: 409-429.
- 채웅준. 2017. “지식 수용과 번역의 사회적 조건: 들뢰즈 저작의 번역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31: 425-470.
- 최진석 · 김병준 · 허예슬 · 최주찬 · 황호덕. 2023.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좌: 현대문학연구자의 성별 및 세대별 김윤
식 저술 인용 양상 연구(2004-2019)” 『국제어문』 96: 305-346.
- 푸코, 미셸(Foucault, Michel). 2014.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
사.
- 허경. 2010a. “프랑스 철학의 우리말 번역과 수용: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6: 439-441.
- _____. 2010b. “‘해방’에서 ‘담론’으로: 대한민국 푸코 ‘수용 초기’ 지식인 담론
의 한 변화”. 『인문과학연구』 27: 433-461.
- 황지영. 2016.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경제적 인간’ 연구”. 『구보학보』

15: 212-238.

황호덕. 2012.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지도·수형도.” 『상허학보』 35: 53-115.

한국불어불문학회. 2015. 『한국불어불문학회 50년사』. 한국불어불문학회.

Roberts, M. E., Stewart, B. M., Tingley, D., Lucas, C., Leder-Luis, J., Gadarian, S. K., Albertson, B., & Rand, D. G. 2014. “Structural Topic Models for Open-Ended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1064-1082.

기타

〈표 7〉 연도별 푸코 저작 인용 횟수

저작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감시와 처벌』	9	7	12	5	12	6	11	11	11	9	9	14	6	10	132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7	8	11	7	9	7	9	5	6	9	6	9	1	13	107
『말과 사물』	6	3	4	2	3	6	6	5	4	4	8	11	13	10	85
『헤테로토피아』	0	0	0	0	0	0	2	9	4	8	11	14	14	18	80
『안전 영토 인구』	0	0	4	0	6	3	8	4	4	6	5	5	4	5	54
『광기의 역사』	2	1	1	6	4	3	1	6	4	2	3	3	2	1	39
『담론의 질서』	1	2	2	5	3	3	3	2	6	2	3	2	1	2	37
『지식의 고고학』	4	2	1	2	3	2	2	6	3	0	3	3	0	1	32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0	0	3	2	0	0	1	5	3	4	4	5	1	4	32
『임상의학의 탄생』	2	1	1	2	2	3	3	3	3	2	2	1	0	1	26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0	0	1	0	0	1	3	1	3	6	2	2	2	4	25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1	7	3	2	2	1	2	4	0	2	0	0	1	0	25
『자기의 테크놀로지』	1	1	3	2	1	3	1	2	2	0	0	1	0	2	19
『권력과 지식』	0	3	2	2	0	2	2	2	2	1	0	0	1	0	17
『주체의 해석학』	0	0	1	1	0	0	2	1	1	1	1	3	1	3	15
『문학의 고고학』	0	0	0	0	0	0	0	1	1	2	1	2	1	3	11
『비정상인들』	2	1	2	0	0	0	3	0	1	1	0	0	0	0	10

[Abstract]

**Portraits of Foucault in the Realm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racing Changes in Foucault Citations through Bibliographic Data
from KCI-Indexed Journals, 2008-2021

Hub, Ye-sel, Sungkyunkwan University

Kim, Byungjun, KAIST

Choi, Joochan, Sungkyunkwan University

Choi, Jin Seok,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ole of Michel Foucault's writings in modern Korean literary research by tracing the changes in citation patterns of his work in the Korean academic field of modern literature since the late 2000s. The methodology included statistical analysis, structural topic modeling, and qualitative analysis of actual cita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part from a significant decrease in 2020, the frequency of citations of Foucault's work has been on an increasing trend. His works were cited in the order of their middle, early, and late periods, with consistent interest in "Discipline and Punish" and a notable increase in citations of "Heterotopia." Additionally, the difference in topics between papers that cited Foucault and those that did not was examined through the effect of nominal variables. It was found that papers citing Foucault prominently featured topics related to (political) discourse, the Other, and space.

Secondly,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citation patterns was observed. Statistically, women cited Foucault more than men. Within the gender groups,

women significantly focused on the topics of the Other/subject and gender, while men were more engaged with language/text, criticism/literary history. In summary, although Foucault's thoughts on the origins of modern literature are explained from the standpoint of language, interestingly, Korean researchers in modern literature have been more actively adopting his thoughts on power and politics, portraying him as a micro-analyst of power. Concurrently, the political and resistant aspects of Foucault's discussions on power, particularly evident in the Korean translations and citations of "Heterotopia," have been further expanded and solidified predominantly by female researchers.

Key Words: Foucault, Modern Korean Literature, Digital Humanities, Structural Topic Modeling, KCI

허예슬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생으로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현대소설이며 발표 논문으로는 「193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 가정교사 재현 문제」(2020), 「잡지 『삼천리』의 '만국부인' 기획」(2022)이 있다.

E-mail: yeseul-huh@daum.net

김병준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분야는 디지털인문학, 자연어처리, 계산사회과학이며, 연구 이력은 홈페이지(<https://byungjunkim.com>)를 참고.

E-mail: bjkim@byungjunkim.com

최주찬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전공분야는 한국현대소설·비평이며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문학과 재현, 검열의 문제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 논문으로 「이인직 소설의 감정론」(2021)(공저),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좌」(2023)(공저)가 있다.

E-mail: cjc2851@naver.com

최진석은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현대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냉전, 냉전문화 등 냉전기 한국 지성사 및 문화사와 관계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gkman1@hanmail.net

[2023. 10. 10. 접수; 2023. 11. 09. 수정; 2023. 11. 17. 게재확정]